

慶北道, 울릉도에 까치보내

까치가 없는 울릉군민들이 까치소리를 듣게 되었다. 慶北道에서는 까치가 없는 울릉군민들의 정서 생활향상을 위해 지난 11월23일 제 1 차로 34마리의 까치를 울릉군으로 수송하여 일정기간 적응시킨후 내년 초봄에 들과 산에 방사할것이라한다. 경북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조류연구가인 李正雨씨(本會 대의원 · 국립공원지 야생조연재물 집필자)의 지도를 받아오다 이날 李씨의 책임지도 아래 현지로 떠났다 한다.

허물어진 北漢山城을 復元

서울市, 94년까지 서울천도 6百週맞아
11億余투입, 城門3곳 성곽5km 登山路정비

서울시는 11월24일 한양定都 6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모두 11억6천6백만원의 들여 94년까지 대남문등 북한산성의 주요성문 3개소를 원형대로 복원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구간 5.5km의 성곽을 재정비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성곽훼손을 막기위해 등산로도 새로 내기로 했다. 북한산성은 그동안 성곽이 등산로로 활용되는 등 방치돼 성곽과 문루(성문)등이 크게 훼손돼 있다.

시는 올 연말쯤 1억원의 예산을 투입, 북한산성의 대남문 복원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91년에는 6억6천여만원을 들여 대남문 복원 마무리및 대성문 복원 공사를, 92년에는 대동문을 복원(공사비 4억원)할 계획이다. (11. 25. 世界日報)

山林廳서 조류보호조약추진

北韓 · 中 · 蘇 · 日本등과

산림청은 철새와 철새서식처(습지) 보호를 위해 북한 · 소련 · 중국 · 일본등과의 조약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관계자는 11월4일 조류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9월 · 소련 마가단에서 열림)에서 채택된 결의문(태평양연안국은 조류보호를 위한 조칙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과 국제조류보호회의 아주지역(회장 元炳旣 경희대교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북한 · 소련 · 중국 · 일본등과의 조류보호조약을 체결키위해 외무부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조류보호조약이 체결되면 각국 조류학자들은 상대국 철새서식지(습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철새보호와 학술적 관리방안등을 공동연구하게 된다.

滿州호랑이 山林人夫가 目擊

吉林長白山脈 · 黑龍江省에 서식추산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滿洲호랑이가 中國 북동부 산악지대에서 목격돼 만주호랑이의 멸종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됐다고 중국관영 차이나데일리紙가 3일 보도했다.

최근 만주호랑이가 목격된 것은 북한과 접경지대인 吉林省 장백산맥에서 산림인부들에 의해서였는데 지난 수년동안 멸종위기의 이동물의 자취는 吉林省과 이웃 黑龍江省을 중심으로 수차례 발견됐으나 구체적인 생존증거는 찾지 못했었다.

동물학자들은 지난 60년대말 야생 만주호랑이의 수를 80마리로 추정했으며 80년대들어 30마리로 격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外信)

低公害 자동차 개발 적극추진

美議會 大氣淨化法 改正따라

상공부는 11월13일 美의회가 대기정화법을 개정, 94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위해 1단계로 업계공동으로 고성능엔진과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의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업발전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現代의 忠南 南陽만 주행사험장(1백2만평)

▲ 起亞의 忠南 牙山주행시험장(52만평) ▲ 大宇의 全北群山 주행시험장(35만평)을 93년까지 서둘러 완공토록 부지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상공부는 2단계로 메타놀엔진·천연가스엔진등 저공해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연구소가 관련업체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연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단계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기술의 기술수요조사 및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생산기술 5개년계획에 반영, 잔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美의회는 지난달말 자동차 배출가스를 94년부터 현행 기준치보다 가스종류별로 40~60%씩 감소시키고 2003년부터는 다시 새로운 규제치의 50%를 줄이도록 대기정화법을 개정했다. (11. 13. 京鄉新聞)

馬羅島에 국내최대 太陽光발전시설

국내 태양광발전기술 평가할 試金石

우리나라 최남단 馬羅島에 국내최대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

동자부는 23일 총공사비 4억8천6백만원을 들여 30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마라도에 세우기로 했다. 韓電기술연구소와 동력자원연구소가 맡게 될 이 태양광발전시설은 12월부터 설계에 착수, 내년 9~10월에 준공돼 마라도내 27가구 87명의 주민들에게 24시간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현재 마라도에는 10kw와 18kw급 소형자가발전시설이 있으나 10kw급은 고장나 가동되지 않는데다 경유등 연료비 부담도 가중돼 일몰후 하오10시나 자정까지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

특히 이번에 마라도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그동안 축적, 개발돼 실용화단계에 들어선 국내 태양광발전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성공할 경우 96년이후 전기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2백6개 군소도시의 2천9백62가구에도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까지 태양광발전시설은 80년에 京畿도 아차섬과 87년 全南麗川의 하화도에 설치됐으나 하화도에

서만 실용화에 성공을 거뒀다. 마라도의 태양광발전 규모는 여름철 관광객증가까지 감안, 국내 최대 시설용량을 갖추게된다. (11. 12. 韓國經濟)

환경보수공개토론회

12. 10. 環境保全協會주최로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회장 鄭壽昌)는 12월10일 하오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21세기를 향한 「국민환경인식의 전환방향-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의 역할-주제의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盧隆熙박사(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동 토론회서 안기희박사(국제환경문제연구소)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음인사가 지명토론에 참가했다.

- △ 최석진 실장(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학교육실)
- △ 손희만 과장(환경처 홍보지도과)
- △ 정광모 회장(소비자연맹 회장)
- △ 최열 공동의장(공해추방연합)
- △ 김수복 사장(한국종합수기공업·주)



△ 사진 : 濟州寒蘭 인공開花 성공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인공배양한 제주寒蘭을 꽃피우는데 성공, 관련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11. 16. 濟州=聯合·韓國經濟)

14개山 “入山통제” 追加 팔공·관악 등 17개구역 3년간 전국 28개산 47곳으로 늘어나

내무부는 8일 光州 무등산, 서울 관악산·수락산 등 각시·도에서 선정한 14개 산, 17개구역을 자연휴식년제 대상지역으로 확정, 내년 1월부터 3년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지역은 팔공산·무등산·낙산·태백산·대둔산·조계산등 도립공원 6개산 8구역과 운문산·불영계곡등 국립공원 2개산 2구역, 기타 6개산 7구역이다.

이로써 자연휴식년제 실시 예정지역은 지난 10월 건설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14개, 산 30곳을 포함해 전국 28개산 47곳으로 늘었다.

내무부는 그러나 사찰·상가등 주민의 생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인근지역은 자연휴식년제 실시대상 구역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昭陽·八堂·大清등 2급수水準

富營養化하면서 가속되어 썩어간다고 환경처 10月中 公害측정자료서 判明

전국민 80%가량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漢江·洛東江·錦江·榮山江등 4대강 수계의 일곱군데 인공호수가 물속에 녹아드는 유기물질 탓으로 富營養化하면서 빠른 속도로 썩어가고 있다.

또 이들 상수원에서 대장균이 1백㎖에 최고 2만4천개체까지 검출됐는가 하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먼지가 환경기준치를 여러차례 넘는등 대기오염도 심해지고 있다.

이는 환경처가 8일 공개한 10월중 공해측정자료에서 밝혀졌다.

◇수질=八堂·衣岩·忠州·昭陽·安東·大清·榮山湖등 인공호수가 축산및 양식장폐수·생활오수의 증가로 물속 질소및 인(磷)등 유기물질이 너무 많아 산소결핍과 함께 물이 썩어 생물생존이 어려운 富營養化 단계에 이르고있음을 나타냈다.

安東湖의 경우 총질소가 89년 0.6PPM에서 올 10

월에는 1.3PPM이 됐고 忠州湖는 0.8PPM에서 1.2PPM으로 악화되는등 八堂·榮山·昭陽·忠州·安東湖등 5곳이 무더운 여름이 아닌데도 유기물질과다로 썩는 현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7대호중 1급수가 목표인 昭陽·八堂·大清·安東湖는 모두 2급수 수준이었고 2급수가 목표인 衣岩·忠州·榮山湖중 衣岩·忠州湖만 간신히 2급수를 유지했을뿐 榮山湖는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야만 상수로 쓸수있는 3급수 수질이였다.

◇대기=특히 먼지 공해가 심했다. 서울은 20개 측정지점 중 10곳에서 한달간 35번이나 먼지 기준치를 초과, 호흡기질환이 유발될 우려가 높았다.

나머지 지역중에서는 仁川·安養·富川등 세곳에서 각각 한번씩 먼지기준치를 초과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문제점을 반영했다.

먼지의 하루기준치는 입방m당 3백마이크로g으로 연간 3회이상 초과하면 안되게 되어 있으나 서울에서는 한달에 35회 초과하는 심각성을 보였다.

10월중 서울 南加佐洞이 최고치인 4백51마이크로g을 기록하는등 서울에서는 梧柳洞이 7회, 南加佐·漢南洞이 6회, 聖水洞이 5회, 蠶室 1洞이 4회, 雙門洞이 3회씩 기준을 넘었고 佛光·文來·芳夷洞이 1회씩 기준을 초과했다.(12.8. 中央日報)

汚染된 漢江·줄어지는 물고기

무분별한 開發이 主犯·서울市 생태계조사보고

12월21일 서울市가 발표한 漢江생태계 조사보고(八堂하류)는 인간에 의해 파괴돼가는 자연생태계의 참담한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漢江의 어족조사는 京安川합류지역부터 掘浦川합류지점까지 9개지점에서 실시됐다.

◇漢江의 어족상황=1차 담수어 17종(81%)과 주연성어류 4종(19%) 등 모두 21종.

1차담수어는 잉어과가 14종(82.4%)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가 동자개과및 검정우렁류.

八堂쪽 상류부터 뚝섬까지는 주로 피라미·모래무지·꼬리·중고기·참중고기·강준치·배스·블루길등이, 뚝섬하류에는 누치·붕어·잉어·두줄망둑·땡명모치·뺨장어등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누치·뿩경모치는 유기오염에 내성이 강해 蘭芝島하류에서도 서식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멸종된 것으로 밝혀진 은어·옹어·싱어는 1432년 孟思誠의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漢江어류편에 나오는 것이다.

◇생태계파괴=이번 조사에 참여한 祥明女大 田 祥麟교수(55·생물학)는 생태계파괴의 주범으로 무분별한 漢江개발을 꼽고있다.

82년 9월28일 착공, 86년 9월10일 완공된 이 漢江 종합개발은 하상준설·수중보등 인위적 자연환경 개조로 어족등의 서식환경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유람선이 다니도록 수심 2.5m 깊이로 편평하게 하상을 고르는 바람에 산란조건이 달라져 어족의 단 순화가 촉진됐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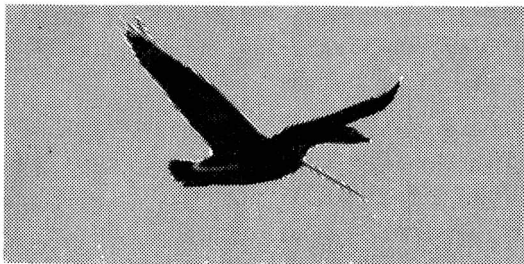
수중보도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막고 고수부지의 시멘트옹벽은 너무 급경사, 피라미등 얇은 곳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차츰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폐수의 유입으로 플랑크톤의 구성도 달라져 유기물에 의한 빈부수성이 1년동안 73.9%에서 70.5%로 줄어든 반면 강부수성은 5.4%에서 5.8%로 늘어 생태계 사이클에 변화를 주었으리란 분석이다.

이와함께 물장군이 완전히 사라지는등 수서곤충도 크게 줄어 먹이사슬의 하부구조가 와해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지적됐다. (12.21. 中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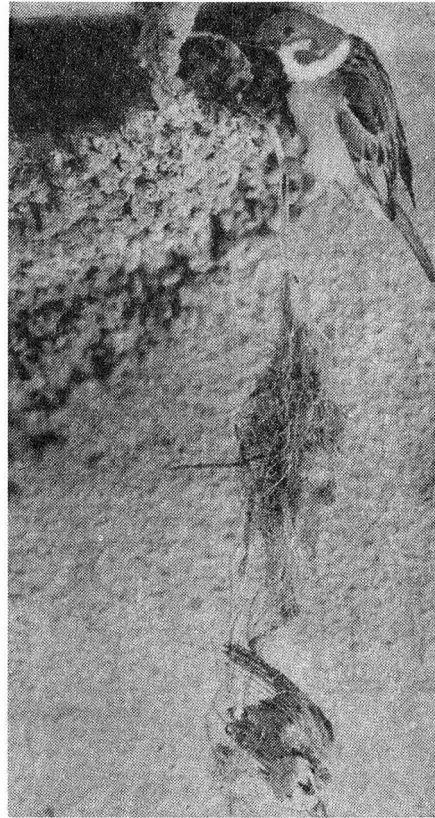
화살맞은 기러기

가슴에 화살을 맞은 기러기가 10.17. 美메인주 리 먼근처 111번국도 북쪽 上空을 날아가고 있다. 이 기러기는 수주전 캐나다서 화살을 맞았다는데 목격자들이 기러기를 잡아 화살을 빼주려 기도했으나 실패했다고(外信).



「참새의 눈물」野鳥의 슬픔

일본 조류보호연맹등에 의하면 전국각지에서 버린 낚시줄에 의해 다리를 절단당한다든지 말려서 움직이지 못한채 죽는 野鳥가 급증하고 있다. 河川이나 바다뿐아니라 최근엔 공원등의 연못주변서도 낚시줄에 묶인채 죽은 참새나 야조들이 많다고 낚시인들의 낚시줄 뒷처리를 경고. (아사이신문에서)



◁ 허리붙은 제비의 동지를 점령했으나 낚시줄에 걸려 공중에서 죽은 참새와 새로 동지를 점령코져 날아온 참새(河內長野市 小山田町서)

自然保護中央協議會長 李敏載박사 별세

아주공대학장과 江原大총장을 지낸 李敏載 自然保護中央協議會長이 12월27日 하오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향년 73세).

李박사는 경성약학전문학교와 북해도 제국대학 식물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문리대교수와 문교부차관, 학술원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82년부터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일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李惠卿 여사와 2남2녀가 있다.